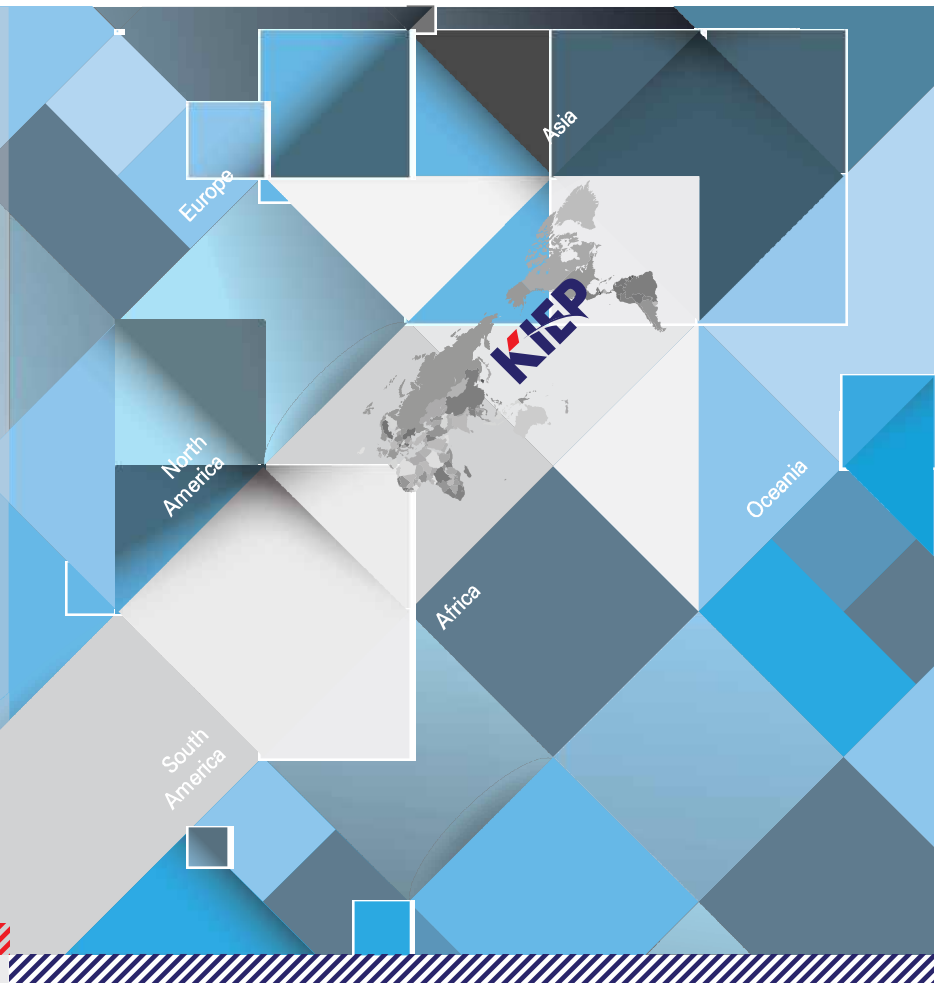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7-01

2017년 8월 25일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 석유산업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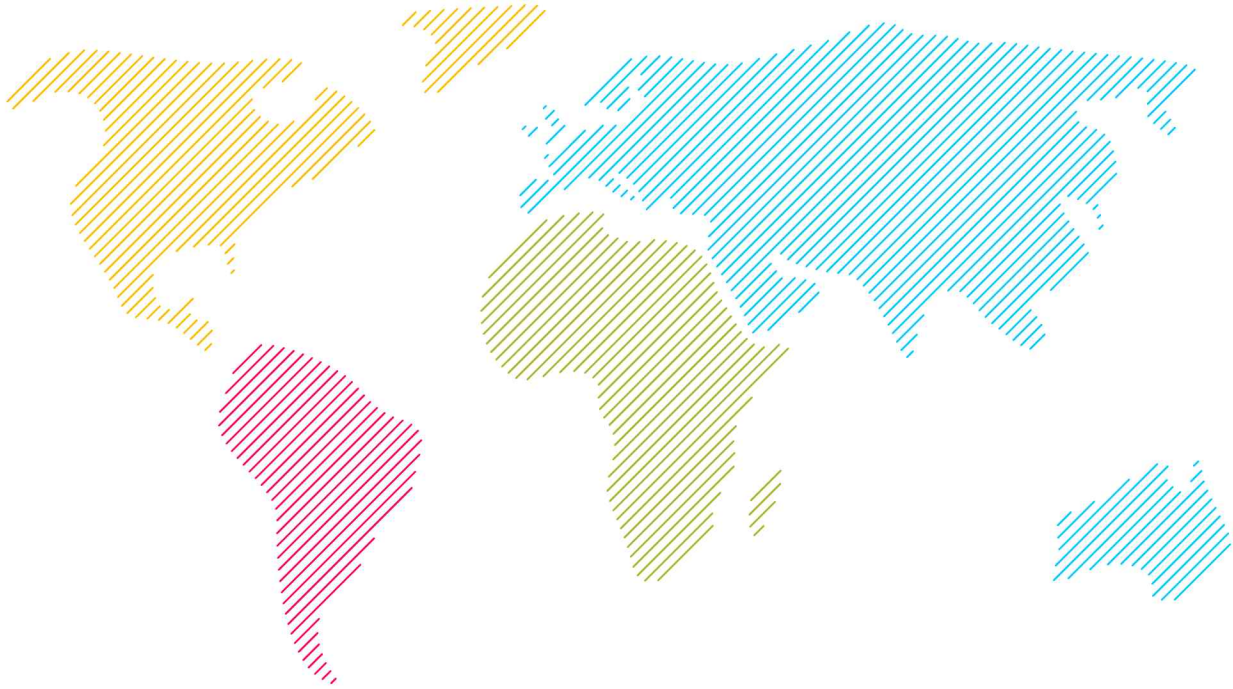
정재욱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이보안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前)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 섬유산업 현황 및 시사점

요약

- ▶ [검토 배경] 동아프리카 지역이 최근 중국, 동남아를 잇는 섬유산업의 차세대 생산조달지로 주목받고 있음.
 - 글로벌 의류업계는 최근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의 섬유제품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다운스트림 생산기지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동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값싼 전력, 접근이 용이한 선진국 수출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 측면에서 중국, 동남아에 이은 차세대 섬유산업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음.
- ▶ [현황] 동아프리카 지역의 대(對) 미국 및 유럽 섬유·의류 제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글로벌 의류업체가 케냐,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시범생산을 성공하고 생산설비를 확대 중임.
 - 미국과 유럽 의류시장에서 동아프리카 지역 수출품의 점유율은 아직 미미하지만 최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 혜택에 힘입어 수출액이 급격히 신장하고 있음.
 - H&M이나 PVH와 같은 글로벌 패스트패션업체들이 이미 에티오피아에서 시범생산을 성공하고 생산설비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한편 터키, 인도, 중국계 기업들도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규모로 진출하고 있음.
 - 동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섬유산업을 중장기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제조업으로 삼고 전력, 수송 인프라 확충, 행정시스템 개선, 산업인력 양성, 세금우대 등 다양한 육성책을 펴고 있음.
 - 높은 자본조달비용, 낮은 노동생산성, 정치적 불안요소 등 지역적 한계는 여전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빠르게 생산조건이 개선되고 있음.
- ▶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섬유업계의 동아프리카 지역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동아프리카 주요국간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함.
 - 동아프리카 지역이 중국이나 동남아를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단기간에 부상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패션기업의 공급선 다변화 전략에 따라 미국 및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생산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음.
 - 한국기업의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동아프리카 지역 주요국 정부간 협력을 통해 상호 투자와 교역 확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구축 등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차 례

1. 검토배경
2. 동아프리카 섬유산업 환경 및 현황
3. 동아프리카 주요국의 관련 정책 사례
 - 가. 에티오피아
 - 나. 케냐
4. 결론 및 시사점

1. 검토 배경

■ 2000년대 중국에 이어 최근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의 섬유·의류 제품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다운스트림 생산지 확보가 글로벌 의류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 섬유산업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섬유원사 및 원단 제조 같은 원자재(업스트림)부터 봉제(다운스트림)까지 각 부문별 생산이 전 세계에 걸쳐 분업화되어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선진국의 섬유산업 구조조정 이후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지가 지속적으로 이동하였음.
- 또한 섬유산업은 산업혁명기 영국에서부터 이미 노동력에 기초한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하고 관련 산업이 많은 제조업으로 알려져 과거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많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수출시장 진출을 통한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산업화 전략을 취하였음.
- 증가하는 ‘패스트패션’ 수요에 따라 디자인 교체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¹⁾ 글로벌 패션업계의 생산비용 절감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 생산지인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다운스트림 생산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패스트패션’은 최신 유행의 옷과 신발, 악세서리 등을 값싸게 사고자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회전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방식과 그렇게 공급되는 의류를 지칭하는 말로 2000년대 이후 이른바 SPA²⁾ 브랜드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로 자리잡음.

■ 동아프리카 지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외에도 값싼 전력, 선진국 수출시장 무관세 및 쿼터 면제,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 등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어 섬유산업의 차세대 글로벌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음.

- 동아프리카 지역은 약 2억 명에 달하는 노동가능인구와 경쟁국 대비 비교적 낮은 미숙련노동 임금, 0.05~0.1달러/kWh 수준의 값싼 전력, 미국, EU 시장과 가까운 거리, 선진국 시장으로 쿼터 제한 없는 무관세 수출 등의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비해 생산비 절감이 가능함.
- 현재로서는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섬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지만 동아프리카 지역은 면화나 가죽 등 섬유산업의 주요 원자재를 공급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 역내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시장 통합 또한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내수 혹은 역내 시장 진출조건도 유리함.
- 동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섬유산업 등 제조업 육성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목표로 삼고 전력, 수송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 확충, 수출입 통관 및 노동, 행정 시스템 개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 원자재나 생산설비 수입에 대한 세금우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1) 최근 대표적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인 Zara의 경우 연간 24개 신규 디자인 라인율, H&M은 12~16개 라인을 발표하고 있음(Remy et al.(2016), "Style That's Sustainable: A New Fast-Fashion Formula," McKinsey & Company 참고).

2) 제조 직매형 의류전문점(SPA: Speciali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2. 동아프리카 섬유산업 환경 및 현황

■ 동아프리카 섬유산업의 수출은 현재 전 세계 섬유산업 수출규모의 약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 섬유산업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는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과 용이해진 미국·유럽 시장 진출에 힘입어 섬유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음(표 1 참고).
-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는 미국 및 유럽의 직접투자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섬유산업 육성책을 시행한 결과 현재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섬유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

표 1.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 주요국 섬유산업 수출 현황

국가명	수출(2016년, 백만 달러)	연평균 수출성장률(2010~16년)
모리셔스	704.0	-2%
마다가스카르	627.0	10%
레소토	431.0	3%
케냐	375.0	11%
남아공	290.0	-5%
스와질란드	154.0	0%
에티오피아	87.3	97%
탄자니아	47.9	72%
보츠와나	9.1	-13%
가나	8.1	55%

자료: UN Comtrade 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SITC 84(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기준, 음영 표시가 있는 국가는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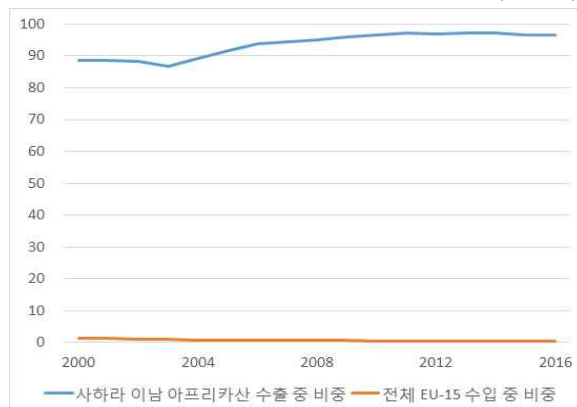
■ 동아프리카 지역의 대(對) 선진국 시장 섬유·의류 제품 수출은 아직 시장점유율은 낮지만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특혜조치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얻으며 수출량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 미국과 EU-15 시장에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섬유·의류 수출은 아직 낮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AGOA(아프리카성장기회법)나 EBA 원칙(‘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Everything but Arms)’ 원칙)³⁾ 등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무역특혜조치를 활용한 섬유·의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1, 2 참고).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폐기로 인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된 섬유·의류 제품의 대(對) 미국 시장 무관세 진입이 어려워졌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대(對) 미국 및 유럽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 특혜가 축소되는 등 경쟁국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선진국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 반면 동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AGOA(미국)나 EBA(EU)를 활용하여 선진국 의류시장으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 시장까지 수송거리가 짧다는 이점을 누리고 있음.

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EU의 특혜무역조치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해당 국가산(産) 제품의 대(對) EU 수출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원칙.

그림 1. 동아프리카 섬유 수출품의 EU-15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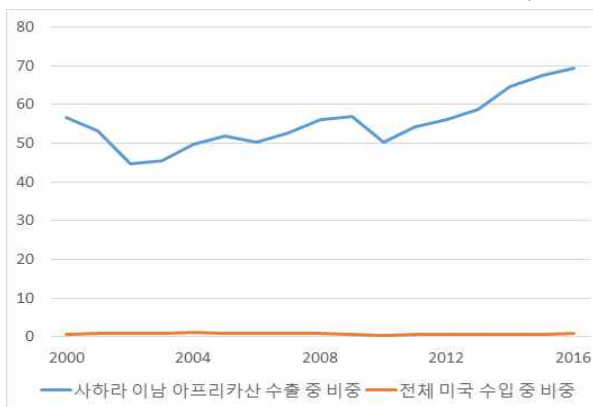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 Comtrade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SITC 84 기준 EU-15: 동유럽국가들의 EU 가입(2004) 이전부터 EU 회원국인 15개국.

그림 2. 동아프리카 섬유 수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 UN Comtrade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SITC 84 기준.

- 케냐, 모리셔스 등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UN 개발정책위원회 지역구분 기준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되어 EBA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유럽시장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 지위를 회복하고자 노력 중임.
- 특히 미국의 AGOA는 제3국 원단을 사용한 아프리카 지역 수출 의류에 대해서도 지역쿼터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이를 미국 대형 중저가 소매시장에 수출하는 형태의 의류 생산이 확대되고 있음.

표 2. 아프리카 대상 주요 무역특혜조치

	AGOA (아프리카성장기회법)	EBA 원칙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Everything But Arms)’ 원칙)	EU-ACP 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주요 내용	-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대상국가의 대(對) 미국 수출 관세와 쿼터를 면제	- EU의 일반무역특혜관세제도(GSP)로 대상국가의 대(對) EU 수출 관세와 쿼터를 면제	- 개발도상국과 교역 및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소 기여를 위한 호혜적 무역특혜
대상국가	- 사하라이남아프리카 38개국 - 섬유, 의류의 경우 26개국	- UN 개발정책위원회 지역 구분 기준 최빈개발도상국(LDC, 아프리카 34개국 포함 49개국)	-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연안 지역의 개발도상국
대상품목	- 섬유, 의류, 전자제품, 일부 농산물 등 HS 8단위 기준 6,000여 품목	- 무기 및 탄약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 (HS 8단위 기준 7,200여 품목)	- EU 시장에 대해 즉시 전면 개방 - 대상국의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75~98% 수준 개방
적용시기	- 2000년 시행 - 두 차례 연장, 현재 2025년까지 적용	- 2001년 시행 - 만료시한 없음.	- 2002년부터 협상 시작 - 47개 협상 참여국 중 현재 14개국과 협상을 마치고 임시 시행
주요 특징	- 국가별이 아닌 지역 전체 쿼터로 선착순 무관세 적용 - 제3국 원단 사용 의류의 경우 무관세 쿼터 적용(24개국 해당)	- 최빈국 졸업 이후 3년까지 유예 - 일부 품목은 원산지규정 적용 - 인권, 노동 규정 위반 시 제외	- 과거 개발도상국 대상 무역특혜제도인 로메협정이 WTO 최혜국 규정에 저촉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 - WTO의 상호주의, 무차별, 원산지규정 적용의 원칙하에 중장기적 상호관세철폐 목표

자료: agoa.info, European Commission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최근 스웨덴의 H&M이나 미국의 PVH와 같은 글로벌 패션기업을 비롯하여 터키, 중국, 인도계 의류 제조업체가 에티오피아, 케냐 등의 섬유산업단지로 투자진출하고 있음.

- 세계적인 패스트패션 기업인 H&M(2016년 포브스 Global 2000 기준⁴⁾ 의류업체 세계 6위)이나 캘빈클라인, 타미 힐퍼저 등의 브랜드를 생산하는 의류기업 PVH(세계 17위)는 에티오피아의 메켈레, 볼레르미, 아와사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시범생산에 돌입하였고 올해 처음 해외수출을 시작하였음.
- 터키,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현재 글로벌 섬유산업 다운스트림의 핵심 국가 또한 자국 내 생산비 인상으로 인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섬유산업단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거나 확장하고 있음.
 - 특히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공장 붕괴사고⁵⁾ 이후 노동조건이나 생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패션업체는 '아프리카산 브랜드'를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동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함께 생산현장에 대한 노동조건이나 환경기준을 향상시켜 소비윤리의식에 부응하고자 함.

■ 동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다양한 섬유산업 지원과 해외자본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원자재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최근 10년간 5~10%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과거 농업 육성 중심의 전략을 탈피하고 섬유산업을 비롯한 핵심 제조업 육성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전력, 수송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건설, 행정시스템 개선, 산업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산업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입에 대한 면세, 산업단지 생산물에 대한 수출 지원, 해외기업의 소득세에 대한 일부 면제, 비자, 통관, 자격증 등 관련 행정장구 단일화 및 신속화, 통관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높은 해외직접투자(FDI) 증가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고).

■ 자체 자본조달이 어렵고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아 지역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 주도하에 생산조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높은 자본조달비용, 낮은 노동생산성, 정치 및 사회적 불안요소, 토지소유권 논란 등 아프리카 지역에 만연했던 지역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음.
- 그러나 각국 정부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을 통해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섬유산업 등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은 오랫동안 정치적 불확실성과 복잡한 통관 때문에 수출환경이 좋지 않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주요국의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되어 수출 소요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경쟁국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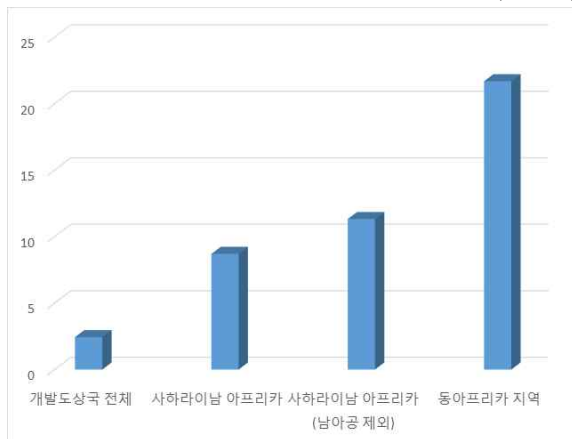
4) <https://www.forbes.com/sites/maggiemcgrath/2016/05/26/the-worlds-largest-apparel-companies-2016-christian-dior-nike-and-inditex-top-the-list/#243a2bd41fc3>(검색일: 2017. 8. 2) 참고.

5)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의 의류생산공장인 라나 플라자가 붕괴되어 1,136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하여 전 세계 패션업체의 개발도상국 저가하청생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91748001&code=940100, 검색일: 2017. 7. 2 참고).

-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AC) 등 역내 경제통합과 동아프리카 SGR(국제표준궤철도)⁶⁾ 건설이나 전력망 구축 등 물류인프라 개선사업이 일부 지체되고 있으나 기타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해볼 때 역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높은 잠재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평가됨.

그림 3. 연평균 FDI 유입 증가율(201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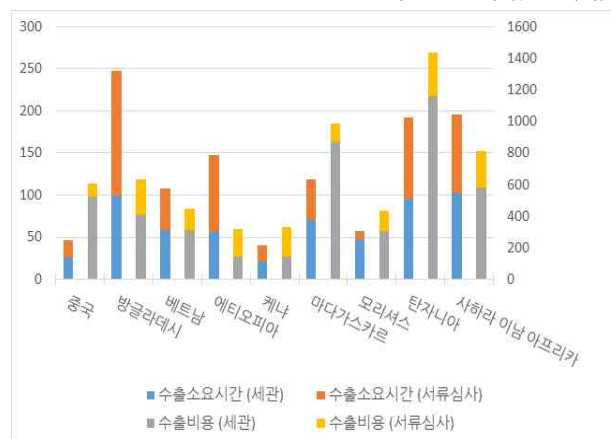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CTA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주요국의 수출통관 소요시간 및 비용

(단위: 시간(좌), 달러(우))



자료: World Bank(2017), Doing Busines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동아프리카 주요국의 관련 정책 사례

가. 에티오피아

- 최근 10년 동안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아프리카 최대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면화 재배에 적합한 기후, 저렴한 전력요금,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조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5개년(2015~20) 경제개발전략인 제2차 성장과 전환 계획(GTPII: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에 따라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득국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⁷⁾
- GTPII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섬유산업을 선정하고 아프리카 섬유 생산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섬유의류 수출액 300억 달러(2015년 현재 1.15억 달러⁸⁾)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섬유산업발전연구소(TIDI: Textile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저렴한 전력(산업용 전력요금 약 0.05달러/kWh)과 노동력(미숙련노동임금 약 35달러/월)을 바탕으로 글로벌 섬유산업의 차세대 생산기지로서 주목받고 있음.

6) 영국이 최초 철도에서 채용한 궤간 1,435mm를 뜻하며 유럽·북미에 보급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적용비율을 보이는 국제철도의 표준 궤간임.

7) 에티오피아는 1991년 이후 20년이 넘게 ADLI(농업 개발 주도의 산업화 전략,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를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여 2010년 제1차 성장과 전환 계획(GTP I, 2010-2015년)을 발표하고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

8) https://www.just-style.com/interview/ethiopia-sets-its-sights-on-30bn-apparel-exports_id130559.aspx(검색일: 2017. 7. 15)를 참고.

■ 산업단지 조성정책을 총괄하는 에티오피아 산업부는 섬유산업을 비롯한 경공업 육성을 위해 전국 10여 개의 산업 단지를 개발 중임.

- 산업단지의 개발,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산업단지개발공사(IPDC: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rporation)는 향후 10년간 10만 헥타르의 부지를 개발할 예정이며 볼레레미, 아와사, 디레다와, 메켈레 등의 산업단지는 완공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생산을 시작하고 있음.⁹⁾

그림 5. 에티오피아의 주요 섬유산업단지



자료: IPDC(The Ethiopian Industrial Parks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에티오피아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대적 하수처리시스템 설치 등 친환경 산업단지를 저렴한 임대료(평균 월 1.5~2달러/㎡)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투자자 및 개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투자지역에 따라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더불어 광역철도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부티 항(港)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아와사, 메켈레, 디레다와 등에 건설 중인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산업단지의 물류망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¹⁰⁾

■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섬유산업은 낮은 생산비와 선진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연간 12% 이상 성장하고 있음(그림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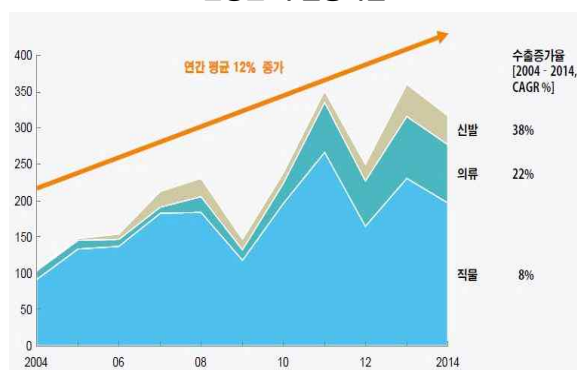
- AGOA의 혜택으로 인해 에티오피아산(産) 여성용 의류의 단위당 미국 시장 수출가격이 1만 5,000달러/톤으로 방글라데시(1만 8,000달러/톤)와 베트남(2만 1,000달러/톤) 등 경쟁국에 비해 낮아짐.¹¹⁾

9) 그밖에 중국 등 외국기업의 투자를 받아 Eastern Industrial Zone, Geroge Shoes Cluster Industrial Park, Huajian Group Shoes Cluster Industrial Park 등의 섬유산업단지를 개발 중임.

10) Oxford Analytica(2016), "Ethiopian Garment Exports Are Poised to Grow" 참고.

- 에티오피아 FDI 유입액은 최근 5년 만에 3배 수준인 약 30억 달러(2016년 기준)로 늘었으며, 중국, 유럽(H&M 등), 미국(Philip Van Heusen) 등 주요 외국 섬유·의류 기업의 산업단지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그림 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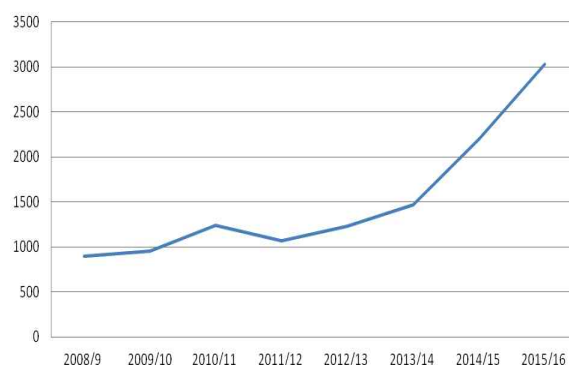
그림 6. 에티오피아 섬유·의류 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Lions on the move II: Realizing the potential of Africa's Economies," McKinsey & Company, p. 78의 그림을 저자 재구성.

그림 7. 에티오피아 FDI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National Bank of Ethiopia(NB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에티오피아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8일에 시작함.

■ 2016년 5월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을 계기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에티오피아 투자위원회(EIC) 간 투자협력 MOU를 비롯한 4건의 양국간 섬유산업 기술협력 및 투자협력 MOU가 체결되었으며, 양국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는 등 우리나라 섬유업계 또한 에티오피아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15년부터 에티오피아의 한국산(産) 의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2015~16년, 2,659% 증가), 비엠 에티오피아 가먼트 & 텍스타일(2010년 진출), 신티에스 ETP(2014년 진출), 영원무역(2016년 진출) 등의 한국기업이 에티오피아 섬유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계획 중임.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볼레레미II 산업단지를 비롯한 에티오피아 섬유산업단지 투자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신티에스12)는 볼레레미II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2015년 기준 70개 라인을 가동하고 약 4,8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13) 최근 기본적인 의류가 아닌 잭울프스킨과 쇼펠 등 고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하여 독일시장에 성공적으로 수출하였음.

나. 케냐

■ 케냐는 ECA(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 2016년 기준 692억 달러의

1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Lions on the move II: Realizing the potential of Africa's Economies," McKinsey & Company, p. 79 참고.

12) 베트남과 에티오피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전거 의류 전문 글로벌 기업이며, 미국(Aerostich, Sherpa, Klim, Polaris, Costco Kirkland, TUMI Outerwear)과 유럽(Jack Wolfskin, Schoffel, La Sportiva, Salewa, GRIFONE, Trangoworld, KTM, Alpinestar, Dainese, REV'IT, Geox)의 의류기업이 주요 고객임.

13) <http://www.shints.com/ethiopia-factory.html>(검색일: 2017. 6. 30)을 참고.

GDP를 기록하였으며,¹⁴⁾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 육성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음.

- 케냐의 제조업은 2016년 GDP 기준 11%에 불과하여 최대 산업인 농업(GDP의 약 25%)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케냐 정부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에서 핵심 육성분야로 선정되었음.¹⁵⁾
- 케냐 통계청에 의하면 의류분야는 2011년 생산지수 125.2에서 2015년 191.5로 크게 상승하며 제조업 생산지수 최상위 5개 분야 중 4위를 차지하였으며, 섬유분야 또한 2011년 생산지수 110.4에서 2015년 123.1로 대폭 상승하였음.¹⁶⁾
- 1980년대 빠르게 발전했던 케냐의 섬유·의류 산업은 1990년대 미국의 무역제재로 급격히 쇠락한 이후, 2000년 발효된 AGOA의 무관세 특혜를 바탕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여 대(對) 미국시장 수출이 2010년 2억 달러에서 2014년 3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하였음.¹⁷⁾

표 3. 2014년 수출자유지역 내 주요 산업 실적 현황

분야	기업 수	고용(명)	수출(백만 달러)	총매출(백만 달러)	투자(백만 달러)
섬유·의류	21	37,785	373.5	385.7	171.2
의류 지원 서비스	5	97	0.1	2.7	2.5
농가공	23	5,000	107.0	112.4	101.6
서비스	13	1,314	30.3	31.2	64.4
음료	3	140	2.3	2.3	2.8
화학	1	73	0.6	0.6	10.5
식품 가공	2	111	2.2	4.2	22.9
구호물자	3	264	21.7	23.3	16.4
플라스틱	2	132	1.0	1.0	2.4
그 외	13	1,305	45.5	87.1	108.2
전체	86	46,221	584.3	650.5	502.9

자료: EPZA Kenya(2014), *Export Processing Zones Program Annual Performance Report*, p. 27의 표를 저자 재구성.

■ 특히 케냐는 1990년 수출자유지역(EPZs: Export Processing Zones)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섬유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활성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형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나이로비, 몸사바, 엘도레, 키수무 등 총 57개의 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107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음.
- 수출자유지역 내 주요 업종 중 섬유·의류 분야가 기업 수, 수출, 투자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총매출 기준 산업단지 실적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표 3 참고).
- 케냐 정부는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 행정간소화, 물류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0년간 법인세와 배당소득 및 과실송금에 대한 원천소득세 면제 등의 조세혜택과 함께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참고.

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참고.

16)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16), *Economic Survey 2016*, p. 191 참고.

17) EPZA Kenya(2014), *Export Processing Zones Program Annual Performance Report*, p. 3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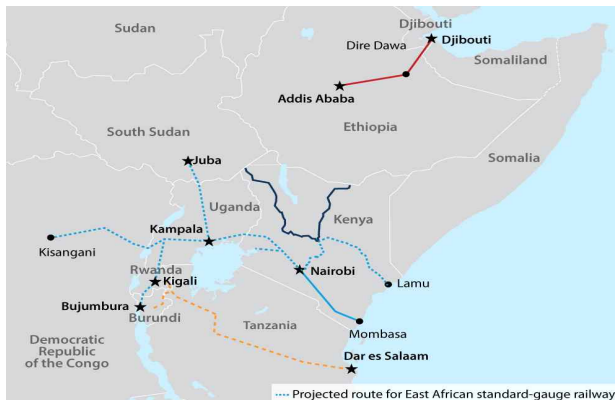
EPZ 내 세관에서 통관절차 진행, 원스톱 행정처리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수출자유지역은 고속도로(나이로비·나망가, 나이로비·몸바사), 철도(나이로비·몸바사) 및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높음.

■ 2015년 9월 케냐 정부는 수출자유지역(EPZs)보다 포괄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별구역(SEZs: Special Economic Zones)을 설치하는 정책을 시작하여 중장기 경제성장전략인 'Vision 2030'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케냐 산업부는 SEZ로 키수무(Kisumu), 몸바사(Mombasa), 라무(Lamu) 등을 선정하고 몸바사 SEZ를 시작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음.¹⁸⁾
- 곧 완공될 예정인 몸바사와 나이로비를 연결하는 130억 달러 규모의 SGR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현지 유통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초기에는 섬유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대부분 인도계였으나 최근에는 뉴와이드 그룹,¹⁹⁾ 자오상쥬 그룹²⁰⁾을 비롯한 중국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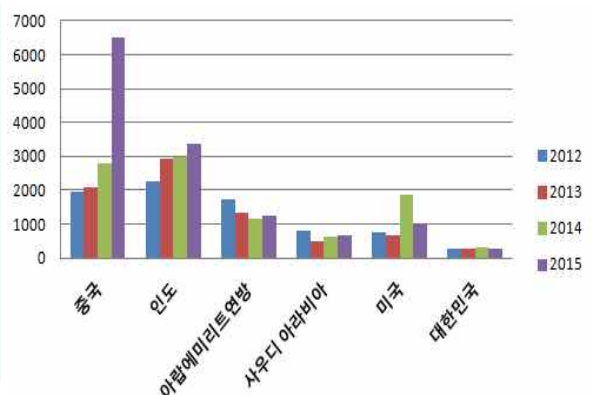
그림 8. 동아프리카 철도 건설 현황



자료: Oxford Analytica(2016), "East African Rails Could Shape Regional Links"의 그림을 재인용.

그림 9. 케냐의 국가 및 연도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loomberg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케냐는 EAC(동아프리카공동체)와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역내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AGOA나 EPA를 활용하여 선진국 시장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요지임.

- 케냐는 EAC(동아프리카공동체)와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빠른 경제성장세와 함께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역내 소비시장으로 수출입이 쉬운 입지를 가지고 있는 한편, AGOA나 현재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EPA를 활용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 중장기적인 수출거점으로 케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18) 키수무(Kisumu)에는 약 70,000ha, 몸바사(Mombasa)에는 20,000ha, 라무(Lamu)에는 70,000ha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임.

19) 연매출 6억 달러(2014년 기준)에 직원 수 1만 4,000명 규모로, 전 세계 21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 의류 생산업체로, 케냐 아티리버 수출가 공공단(Athiriver EPZ)에 진출하여 약 8,000명을 고용하여 월 150만 장의 화섬니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주요 거래처는 월마트, H&M, 나이키 등임.

20) 전 세계 항만, 터미널 등 해운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중국의 국영기업.

■ 현재 우리 정부는 케냐에서 경제개발 경험 공유 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일환으로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6년 대통령의 케냐 방문을 기점으로 양국 정부 주요 협력 사업으로 책정된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KSP 1차(2015~16년)와 2차(2016~17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3차 사업(2017~18년)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케냐 산업부는 약 800ha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음.

■ 케냐는 과거에 비해 부정부패가 많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케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최근 정부주도형 사업이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 “케냐에서는 모든 것이 정치적이다(‘Everything in Kenya is Political’)”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케냐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케냐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함.
- 또한 2016년 7월 IMF가 경고한 바와 같이 케냐의 재정수지 적자가 2016년 상반기 기준 GDP의 9.3%에 달하고 정부부채가 약 3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정부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향후 정부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 건설정책이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동아프리카 지역은 일부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섬유산업의 차세대 다운스트림 생산기지로 충분한 생산조건을 갖추고 있어 동남아시아에 이은 생산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표 4. 아프리카 주요국의 제조업 운영비 비교(2013년 기준)

국가명	공업용지(달러/㎡)	공업용 전기(달러/kWh)	비거주용 상수도(달러/톤)	일반노동자 평균 급여(달러/월)
케냐	11.5	0.056	0.63	150
나이지리아	40~250	0.1	0.5	145~160
에티오피아	1	0.03	0.09	50~100
이집트	7~30	0.36	0.4	90~220
탄자니아	-	0.0745	0.632	60~70
잠비아	40	0.035	0.168	100~300
알제리	-	0.04	0.63	200~390
모리셔스	40~400	0.15	0.5	500

자료: Lee *et al.*(2016), Feasibilit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re Dawa IP를 재인용, 음영 표시가 있는 국가는 동아프리카지역국가임.

-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할 때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임금 이외에도 전력요금이나 산업용지 공급비용 등 생산비용이 낮은 수준이며(표 4 참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과 관련 정책이 글로벌 섬유산업의 수요와 부합하고 있어 주요 글로벌 섬유·의류 업체의 동아프리카 현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음.

- 과거 일본과 한국에 이어 전 세계 소비시장에 공급하는 다운스트림 생산기지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동했던 것처럼 동아프리카 지역으로 글로벌 생산거점이 전면적으로 옮겨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음.
- 그러나 주요 글로벌 섬유·의류 업체들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인 지역 리스크를 분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개별 지역 소비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년 내에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소형 생산거점으로 삼아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기존 공급선을 일부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면화 플랜테이션의 확대, 가죽가공산업의 발전을 통해 원자재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역내 생산가치사슬의 구축을 통한 섬유산업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고, 역내 물류, 교통, 통관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며 지역경제권이 빠르게 통합되면서 인구 약 3억 명 규모의 거대한 역내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중장기적 전망도 밝음.

■ [시사점] 우리나라 섬유업계도 동아프리카로 진출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동아프리카 지역 주요국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구축, 상호 투자와 교역 확대 등 동아프리카 지역과 섬유산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에티오피아와 케냐 등의 산업단지에 우리나라 섬유·의류 기업의 진출이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부터 우리나라 섬유업계와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주요국의 섬유산업 관련 단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동아프리카 지역과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함.
- 특히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기존 한국 섬유업계가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생산비가 점차 상승하고 있고, 특히 미국 및 유럽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동아프리카 주요국에 적용되는 AGOA의 제3국 원단 사용조건을 활용하는 전략을 우리나라 섬유업계 또한 고려하고 있음.
- 한국산 원단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현지 섬유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투자,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개설, 인력 양성 및 기술협력 등 다양한 산업협력이 중요함.
- 미국이나 유럽의 섬유·의류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의 경쟁기업이 이미 진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후발 주자인 한국 섬유업계로서는 진출 희망국가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여 기술 이전, 현지 인력 양성을 결합하는 진출방안이나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맞춤형 진출방안이 요구됨.
- 동아프리카 지역 섬유산업의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본조달비용, 낮은 기술수준, 부족한 인프라 등 지역적 한계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진출희망국가의 장단점과 전망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진출희망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진출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현지의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진출국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KIEP